



동해 망상海水욕장 물놀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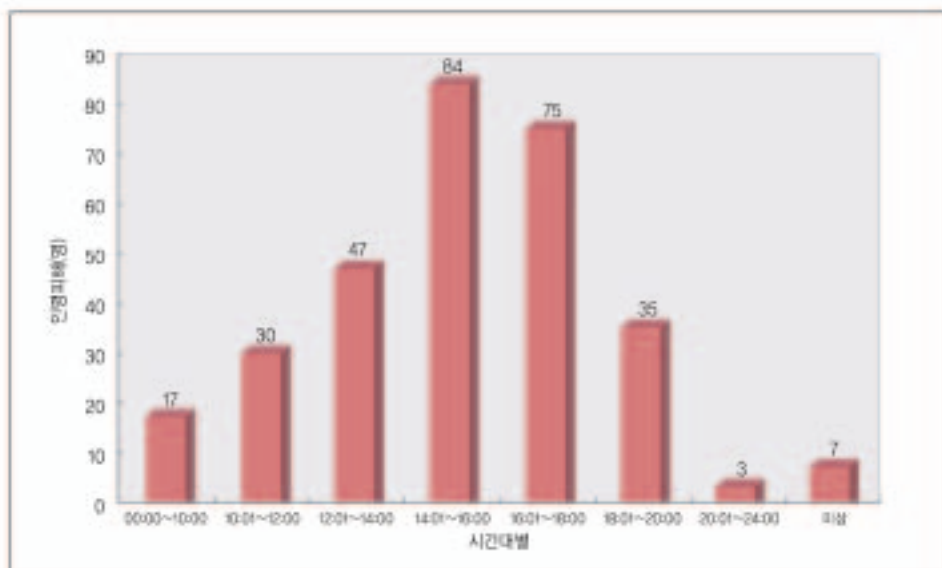
물놀이 안전사고란?

- 물놀이 안전사고는 익사사고, 조난사고, 안전 부주의 사고, 시설안전사고 등 여름철 물놀이 중에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물놀이 안전사고 실태

- 물놀이 안전사고의 40%가 개인 안전 부주의로 발생하고, 하루 동안 시간대별로는 점심 후 나른해지고 피로가 쌓이는 14시부터 18시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해수욕장(16%)보다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안전시설이 부족한 하천, 계곡, 해변 등에서 77%가 발생하였다.
- 연령별로는 10대 이하(31%)가 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고를 많이 당하고, 20~30대(36%) 젊은 층은 자만심 등 무모한 행동 때문에 물놀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안전사고 원인은 안전 부주의와 수영 미숙이 67%, 음주 수영 14%, 수상레저기구 전복 4% 등으로 안전수칙을 무시한 행동에 의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이었다.



【 최근 2년('07~'08) 시간대별 물놀이 안전사고 현황 】

물놀이 위험구역 및 취약구역

-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위험요소가 많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큰 구역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설의 사용 금지와 입수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경고 표지판이나 출입 통제 또는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을 말한다.
- 물놀이에 위험한 곳은 다음과 같고 위험구역(취약구역)에서 마음대로 수영이나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수심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유속이 빠르고 격류가 발생하는 강·하천
 - ▶ 바위나 돌이 바닥에 많아 수영 중 부딪힐 위험이 있는 곳
 - ▶ 수심이 자기 키 높이를 초과하거나 높은 파도가 이는 곳
 - ▶ 수심이 4m 이하일 경우 점프나 다이빙은 위험함
 - ▶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한 수상 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물놀이 금지 표시판〉

검 고 문

이 지역은 관계법령에 따라 갯벌 채취활동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체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200

○ ○ 군 수 (시창)

○ ○ 해 말 검출서 잠



수영금지	다이빙금지	수상스키금지	깊은수심 주의	수심변화주의
				
수영 금지 No swimming	다이빙 금지 No diving	수상스키 금지 No water skiing	깊은 수심 주의 Warning : Deep water	급격한 수심변화 주의 Warning : Sudden drop
높은파도주의	얕은수심주의	급류주의	구명복 착용	
				
높은 파도 주의 Warning : High surf	얕은 수심 주의 Warning : Shallow water	급류 주의 Warning : Strong current	구명복 착용 Wear life jacket	



물놀이 안전사고 사례

- 가족, 친지, 친구들이 물에 빠졌을 때, 다급한 마음에 무모하게 직접 구조하려다 사고를 당한 사례

2008년 8월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변산 해수욕장 인근 해변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놀다가 높은 파도에 뒤집혀 어린이가 물에 빠지자, 삼촌이 구조하려 들어갔다가 조카가 잡고 늘어져서 2명이 모두 사망

- 수영 금지 구역에서의 물놀이 사고 사례

2008년 8월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하천은 생태보전구역으로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 물놀이 안전사고가 예상되어 수영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나, 이 지역에 놀러 온 외지인이 이를 무시하고 물놀이를 하다가 1명 사망

- 해안 지역 갯골에서의 안전사고 사례

2008년 8월 전북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갯벌에서 가족과 함께 갯벌체험을 즐기던 어린이 1명이 조수간만의 차가 큰 갯골의 실정을 모르고 갯골 조개잡이를 하러 들어갔다가 조류에 휩쓸려 사망. 갯곳은 바닷물이 순식간에 드나드는 위험한 곳임

물놀이 안전 행동 요령

- 물놀이 이전에 먼저 하여야 할 것들

- ▶ 햇빛 차단 크림을 바르고 수영 모자를 쓴다.
(※ 머리카락이 길면 목에 감길 수 있으니 묶습니다.)
- ▶ 준비운동을 반드시 하고 음주 후나 식사 직후 수영은 하지 않는다.
- ▶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부터 몸에 물을 적신 후 천천히 들어간다.

- 어린이 물놀이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할 것들

- ▶ 보호자는 어린이를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놀도록 한다.



- ▶ 친구를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장난을 치지 않는다.
- ▶ 산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가도 절대 혼자 따라가서 건지려 하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물놀이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

- ▶ 물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을 할 때는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 한다.
- ▶ 다음의 증상이 있으면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온다.
 -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푸르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증상이 있을 때
 - 다리에 쥐가 나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
 - 비가 오거나 천둥, 번개가 칠 경우
- ▶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
- ▶ 수상스키나 보트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 조끼를 착용한다.
- ▶ 위급할 때는 팔을 최대한 높이 올리고 흔들어서 도움을 요청한다.
- ▶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직접 구하려 하지 말고 주위 물건줄, 긴 막대, 튜브, 스티로폼 등)을 이용하고 즉시 119(해상 122) 또는 1588-3650으로 신고한다.



물놀이 안전사고 상황별 대처 요령

① 의식 없는 사고자를 구하였을 때의 응급조치

- 구조요원 또는 119에 아직 신고되어 있지 않다면 신고한다.
- 가장 먼저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 ▶ 구조하면서 수중에서도 곧바로 실시해야 한다.
- 물을 빼고자 복부나 등을 누르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 ▶ 사고자의 위 속에 있는 물과 음식물을 오히려 역류시켜 기도를 막을 수 있음
 - ▶ 구토물이 기도를 통해 폐에 흡수되어 흡인성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을 빼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음
 - ▶ 인공호흡이 늦어지게 되므로 그만큼 사고자의 소생가능성이 적아짐
 - ▶ 이후의 응급처치 요령은 일반적인 심폐소생술 요령과 동일함
 - ▶ 만약약을 위해 자녀의 연령에 맞는 심폐소생술 요령을 반드시 알아 둬



② 파도가 갑자기 높아져 위험할 때

- 물을 안 먹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다소 마시게 되더라도 체력 소모를 줄이도록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 머리는 수면 상위에 내밀고 큰 파도가 덮칠 때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하다.
- 체력이 다하여 움직일 수 없거나 지쳤을 때 배영, 선 헤엄 등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
- 큰 파도에 휩싸이거나 밀려났을 때는 파도에 안 떠밀리려고 애쓰지 말고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숨을 멈추면 자연히 떠오르므로 그 상태로 비스듬히 헤엄쳐 육지를 향하는 것이 안전하다.

바다란 어떤 곳?

- 일반적으로 파도가 크게 넘실거리는 곳, 바다색이 검은 곳은 깊고, 파도가 부서지는 곳, 하얀 파도가 있는 곳은 얕다.
- 간조와 만조는 대개 6시간마다 바뀌므로 간만 때의 조류 변화 시각을 알아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 조류가 변할 때는 언제나 물 흐름이나 파도, 해저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하므로 웬만큼 자신이 있더라도 이 시간대의 물놀이는 자제한다.

③ 수초에 감겼을 때

- 수초에 감겼을 때는 부드럽게 서서히 팔과 다리를 움직여 풀어야 하고 만약 물 흐름이 있으면 흐름에 맞기고 잠깐만 조용히 기다리면 감긴 수초가 헐거워지므로 이때 털어 버리듯이 풀고 수상으로 나오는 것이 안전하다.
- 놀라서 발버둥칠 경우 오히려 더 휘감겨서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여유를 가지고 호흡하며, 서서히 부드럽게 몸을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꾸준히 헤엄쳐 나오는 것이 안전하다.



④ 수영 중 경련이 일어났을 때

- 경련은 물이 차거나 피로한 근육에 일어나기 쉽고 수영하는 사람은 수영 중 그러한 상황에 항상 놓여 있으므로 흔히 발생한다.
- 경련이 잘 일어나는 부위는 발가락과 손가락이고 넓적다리 부위에서도 발생하며, 식사 직후 (약 30분 이내) 수영 시는 위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 ▶ 특히 위경련은 위급한 상황이므로 신속히 구급을 요청한다.
- 경련이 일어나면 먼저 몸의 힘을 빼서 편한 자세가 되도록 하고(당황하여 벗어나려고 하면 더 심한 경련 발생) 경련 부위를 마사지해 준다.

5 하천이나 계곡물을 건널 때는

- 물결이 완만한 장소를 선정하여, 될 수 있으면 바닥을 끌듯이 이동함이 안전하다.
 - ▶ 시선은 건너편 강변 독을 바라보고 건너야 한다.
- 이동 방향에 돌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피해서 가는 것이 안전하다.
- 지팡이 등으로 수심을 재면서 이동한다. (지팡이는 약간 상류 쪽에 짚는다)
- 물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되 물살이 셀 때는 물결을 약간 거슬러 이동한다.



6 무릎 이상의 깊은 급류를 건널 때는

- 건너편 하류 쪽으로 밧줄(로프)을 설치하고 한 사람씩 건너도록 한다.
- 밧줄은 물 위로 설치하고 밧줄이 없을 때 여러 사람이 손을 맞잡거나 어깨를 지탱하고 물 흐르는 방향과 나란히 서서 건너도록 한다.

7 물에 빠졌을 때

- 흐르는 물에 빠졌을 때는 물의 흐름에 따라 표류하며 비스듬히 헤엄쳐 나온다.
- 옷과 구두를 신은 채 물에 빠졌을 때는 심호흡을 한 후 물속에서 새우등 뜨기 자세를 취한 다음 벗기 쉬운 것부터 차례로 벗고 헤엄쳐 나온다.

8 침수 지역에서의 행동

- 부유물 등을 이용하며, 특히 배수구나 하수구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 도로 중앙 지점을 이용, 될 수 있으면 침수 반대 방향이나 측면 방향으로 이동한다.

9 고립 지역에서의 행동

- 자기 체온 유지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무리한 탈출 행동을 삼간다.



-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구조 신호를 보낸다. (옷이나 화염을 이용)
- 가능하다면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여 상황에 대처한다.

10 보트를 탈 때

- 보트에 들어갈 때는 배를 도크나 강변에 나란히 대놓고 안정시킨 상태에서 배 뒤쪽에서 양손으로 뱃전을 잡고 배 위의 바닥으로 발을 천천히 옮긴다.
- 배 안에서 균형이 잡히면 중심을 낮춘 자세로 자리를 이동한다.
- 보트에서 나올 때는 보트에 들어갈 때와 반대로 하고 내릴 때 뒷발이 배를 강 쪽으로 밀지 않도록 유의한다.
- 물 속으로 떨어졌을 때는 즉시 수면으로 올라와 배를 붙잡아야 하고 잠시 휴식한 후 배 뒤쪽으로 돌아와서 몸을 솟구쳐 상체부터 올려놓는다.
- 모든 승선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11 계곡에서 야영지를 선택 할 때

- 계곡에서 야영지를 선택할 때는 물이 흘러간 가장 높은 흔적보다 위쪽에 있도록 하고, 대피할 수 있는 고지대와 대피로가 확보된 곳을 선정하며 낙석과 산사태 위험이 없는 곳으로 선택한다.
- ※ 물놀이 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때는 즉시 119 (해상 122) 또는 1588-3650으로 신고한다.

